

당신도하고 (전혜닝)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너무 맑음 ☀

제목 : 캠핑

토요일날 친구들과 같이 캠핑을 해서 한밤자고 오늘은 일어나서
세수를 하고 아침식사를 하였다. 아침식사 메뉴는 삼겹살, 밥, 양주
와 같이 먹었다. 그리고 사촌형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하였다.
17점으로 더 빨리 내는 사람이 이기길도 하였다. 그래서 결과는
내가 1번이기고 사촌형이 3번이겼다. 그러다보니 낮이 되었다.
먹을게 없어서 사촌과 같이 짜파게티를 사러갔다. 그래서
이 주변의 슈퍼에서 짜파게티 1봉지를 샀다. 그래서 캠핑장에
와서 점심으로 짜파게티를 먹었다. 그리고 또 사촌형과 배드민턴
을 쳤다. 위임마와 다른 사람들은 오뎅을 두었다. 배드민턴에서 가
나를 1번 이겼고 사촌형은 2번이겼다. 임마는 이기다 쳤다 했다.
그리고 잠수고 나서 텐트를 보며 시키고 다 정리해서 차에 다
다 넣다. 그리고 집이 가면서 사촌형차에 넣은 우리집 댁개
를 가지고 다시 집에 갔다. 집에 가면서 노래를 들으며
갔다. 집에 도착해서 집을 다 정리했다. 그리고 샤워를 한후 머리를
말리고 침대에서 살아남기 7 책을 보다가 런닝맨을 보았다.
너무 재미있었다. 그리고 가족과 함께 초밥집에 갔다. 아버지는
회덮밥을 먹고 나는 간장게장, 날치알밥을 먹고 임마는
냉면덮밥을 먹었다. 참 맛있었다. 집에 와서 양치질을 하고
숙제와 복습을 하였다. 그리고 시험볼 준비를 하기위해 열심히
읽었다. 그리고 가방은 싸고 옷을 갈아입고 잤다. 오늘은 참 힘
들 날인것 같고 하루에 이렇게 많은일을 한것이 참 신기한
것 같다. 다음에도 이렇게 많고 재미있는 하루가 있는 날이
한번 아니면 두번 아닐 여러번 있었으면 좋겠다.